

2014

연구보고서-24

I S S U E P A P E R

성평등 및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수행과제명 •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 연구: 군복무 이행,
성역할 재사회화 및 성평등정책 수용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안상수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평등 및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수행 과제명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군복무 이행,
성역할 재사회화 및 성평등정책 수용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안상수 연구위원

 Tel: 02-3156-7188

 e-mail: ahnss@kwidimail.re.kr

요약

군복무 중 억압적, 반인권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은 낮은 자존감과 낮은 성평등의식을 보인 반면, 높은 성역할 갈등과 성역할 수행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폭력문제에 대한 둔감화’라는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군대내 인권문제와 억압적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 ‘군옴부즈만제도의 도입’, ‘양성평등교육 및 인권교육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안상수·김인순·윤민재·김보연(2014).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남성의 군복무이행, 성역할 재사회화, 성평등정책 수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는 다수자의 지위에 있는 남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특히 남성의 삶에서 군복무 이행 여부는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갖고, 이 점에서 군복무는 이후의 가정과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남성의 삶과 성별관계 및 성평등 정책에 매우 크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그 동안 군복무와 성역할 재사회화, 성평등의식 및 정책 수용이 상당한 연계가 있으리라는 논의는 있었으나 군복무의 남성성 강화 방식, 성역할 갈등과 스트레스, 성평등의식,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역기능적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는 미흡한 상태임. 또한 군대 내 양성평등 환경조성과 관련한 그 동안의 연구들은 양성평등한 군대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은 높았으나 실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와 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효과성에 대한 파악 노력도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군복무 생활의 주요측면인 병영생활과 병영문화의 전반을 파악하고 군복무에 따른 자긍심과 희생에 대한 인식, 군복무에 대한 보상 필요성, 병영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부 및 국방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와 함께 군복무와 남성의 삶의 만족도, 성역할 갈등, 성역할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군복무가 성평등의식이나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하였음. 더 나아가 병영생활문화와 인권감수성과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형태, 군복무 이행으로 나타나는 직장생활영역에서의 파급효과 검토를 위한 채용, 승진, 업무배분 등에서의 군필남성에 대한 선호 및 우대 양상,

가정생활영역에서의 파급효과로서 가사활동 참여 양상,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목적을 지니고 수행되었음.

나. 연구내용

- 1) 남성의 군복무 이행 형태, 복무환경, 군대 내 교육프로그램 이수 정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존감, 성역할 갈등, 성역할 스트레스의 정도
- 2) 남성의 군복무 이행의 주요 요소가 여성에 대한 성역할 태도 및 고정관념과 맺고 있는 관련성 파악을 위한 성평등의식 및 성차별의식 검토
- 3) 군복무 이행의 직장생활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로서 직장에서의 업무할당, 채용, 승진 등에서의 군필남성에 대한 선호와 우대, 가정생활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로서 따른 가사활동 참여 양상의 차이 검토
- 4) 군복무 이행 남성이 경험한 내무생활, 교육/훈련, 억압적, 인권침해적, 성차별적 병영문화 실태와 이에 따른 관련 변수의 검토
- 5) 군복무 이행 남성에 대한 이미지, 군복무의 긍정 및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 6) 군복무 이행과 성문화 간의 관련성 파악

다.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남성, 군복무, 군대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 종합, 인재육성, 리더십, 군복무의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무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 및 군복무 환경개선 논의의 전개, 남성의 성역할 갈등, 성역할 수행 스트레스,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개관
- 3) 실태조사: 19세~49세 연령범위의 군필, 군미필 및 군 면제 남성, 총 1,500명
- 4) 초점면담: 현역병사 11명, 입대전 학생 5명, 직장인 9명, 국방부 정책담당자 3명 등 총 28명의 남성 대상 심층 인터뷰

- 5) 전문가 자문회의: 군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의 영역 설정 및 설문지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분석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조사 및 분석결과

이 연구는 남성의 군복무 수행이 성별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남성성에 대해 여과 또는 증폭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군복무 과정에서 어떤 기제에 의해서 작동될 것이며, 이것이 이후의 남성의 삶이나 성별관계나 성평등 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연구문제를 토대로 이루어졌음. 이를 위해 군복무 이행 남성들이 경험한 군복무 환경, 군복무에 대한 인식, 삶에서의 부담, 군복무 이행의 주요 요소들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관련성, 군복무 병영문화의 경험에 따른 가사활동 참여 양상, 군복무가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남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또는 병영문화 개선에 필요한 정책 선호도 등을 검토하였음. 설문조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밝혀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가. 남성의 군복무 이행과 성역할 갈등

- 군복무 당시의 병영문화에 따라 남성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상이한 영향 미침.
- 군복무 유형, 병과, 소속군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반인권적 병영문화에서 복무한 응답자들에게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자존감은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억압적 병영문화에 따른 구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군복무 중에 경험한 병영문화의 영향이 제대 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됨을 보여주고, 인권비친화적 혹은 억압적인 병영문화가 남

성의 자존감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인권비천화적 혹은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이 역설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군대 관련 회고적 설문조사에서 과거 인권비천화적 및 억압적인 환경 경험과 현재 상황이 대비되는데 따른 만족도의 일시적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복무 당시의 소속군과 연령대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군복무 유형은 전반적으로 남성 성역할 갈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으나, 20대의 해군/해병 복무자가 공군 복무자에 비해 성역할 갈등이 더 높게 나타났음. 20대에서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주로 ‘성공, 권력, 경쟁’ 요소와 ‘일 가정 양립 갈등’ 요소의 차이에서 기인하였음. 또한 20대에서는 행정병과 군복무자가 성역할 갈등 유형별로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병과 복무 남성들의 성역할 갈등이 가장 낮았음. 40대에서는 전투병과의 군복무자가 ‘성공, 권력, 경쟁’ 부문의 성역할 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인권적, 억압적 병영문화 역시 남성의 성역할 갈등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보였고, 제대한지 오래된 40대 연령대까지도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인권적 병영문화에서의 군복무 경험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성역할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상대적으로 성역할 갈등이 크지 않았던 구성요소들에서 병영문화에 따른 차이가 컸음. 대표적으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남성우월’ 요소가 큰 차이를 보였음. 억압적 병영문화의 경험 여부는 반인권적 병영문화의 영향만큼 크지 않았지만 20대와 40대에서는 성역할 갈등 유형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특히 20대와 30대 남성은 ‘남성우월’ 요소에서 유의하게 높은 성역할 갈등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40대 남성은 ‘일-가정양립’에서의 성역할 갈등이 컸고, 40대 남성은 ‘감정표현’에서 스트레스가 더 큰 경향을 보였음.

나. 남성의 군복무 이행과 성평등의식

● 남성의 군복무 이행이 성평등의식에 부정적 파급효과 가능성이 일부 발견되었음. 특히 20대 현역, 해군/해병, 전투병과 복무 이행자의 성평등의식이 낮았음.

- 현역 군복무 20대 남성이 보충역/사회복무 20대 남성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유의하게 낮았고 군미필 남성이나 면제 남성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소속 군별 분석에서도 20대만이 성평등 의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해군/해병의 성평등의식이 가장 낮았고, 육군, 공군의 순으로 높았음. 병과별로는 20대 특수병과 복무자가 전투병과 복무자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높으며, 40대의 경우도 특수병과 복무자가 행정병과나 전투병과 복무 남성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인권적, 억압적 병영문화는 성평등의식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두렷하게 발견되었음.

- 반인권적 병영문화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차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두렷하게 나타났고, 세부영역별로는 20대, 30대의 직장생활 영역, 40대의 사회문화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억압적 병영문화에 따른 성평등의식도 전체 척도점수와 일부 하위영역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음. 즉 억압적 병영문화에서의 군복무 경험이 있는 남성들의 성평등의식이 비억압적 병영문화의 남성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음.

- 인권비친화적 병영문화는 적대적 성차별 의식에, 억압적 병영문화는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 모두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비친화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마친 남성은 인권친화적 병영문화의 남성보다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유의하게 높았음.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의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한편 억압적 병영문화는 모든 연령대에서 두 유형의 성차별의식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즉 억압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마친 남성이 비억압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 비해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군복무 이행에 따른 가정생활영역의 파급효과

- 남성들이 일상적 삶에서 짊어져야 할 역할 또는 이상적 남성의 역할로 지각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를 알아볼 목적으로 남성들의 성역할 수행 스트레스를 알아 본 결과, 20대는 ‘무능력/수행실패’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40대는 ‘여성에 대한 복종’, ‘여성적 역할 수용’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복무 유형별로 남성들의 성역할 수행 스트레스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속군별 분석에서 해군/해병 출신 20대 남성이 ‘무능력/수행실패’ 요인에서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보였고, 해군/해병 출신 40대 남성은 ‘여성에 대한 복종’, ‘여성 역할 수용’에서 육군, 공군출신 남성에 비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겪는 경향을 보였음.
- 군복무가 가정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군복무 유형과 소속군에 따른 가사활동 참여 정도를 알아 본 결과, 가사활동 영역별로 혼재된 결과를 보였음.

- 가사활동 참여 정도를 군복무 유형별로 본 결과, ‘시장보기/쇼핑’ 부문에서 미필/면제자의 참여가 현역이나 보충역/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자녀양육/교육’부문의 참여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의 참여가 미필/면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소속군에 따른 가사활동 참여에서는 ‘의복/침구류 관리’, ‘시장보기/쇼핑’ 부문에서 해군/해병 출신 남성의 참여가 육군, 공군에 비해서 낮았고, ‘자녀양육/교육’부문에서는 공군 출신 남성의 참여가 가장 낮았음. 군대 내 양성평등/성인지교육 경험은 가사활동참여의 모든 부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들 교육이 실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인권친화적, 비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이 인권비친화적,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에 비해서 가사활동 참여율이 대체로 높았음.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한 남성들은 ‘식생활’, ‘집안 유지/관리’부문에서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억압적 병영문화에서 복무한 남성들은 ‘식생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복/침구류 관리’, ‘집안청소/정리’, ‘집안유지/관리’ 부문에서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음.

라. 군복무 이행의 직장생활 및 사회적 파급효과

● 직장영역에서 ‘힘든 일, 중요한 일’에 대한 군필남성 선호’, ‘채용/선발, 승진/인사평가에서 군필남성 우대’ 양상을 보였으며,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성별 직무분리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남성들은 힘든 일, 고된 일, 핵심적인 일은 군필남성을 선호하고, 보조적이거나 비핵심적인 일, 고객서비스 등은 여성을 선호하는 것과 같이 고정관념적 업무분배 양상을 보였음. 즉 야근/밤샘작업, 핵심업무 등에서 군필남성의 선호가 60%를 넘는 반

면에 고객센터/민원창구 업무에서는 반대로 여성에 대한 선호가 50.7% 였음. 사무자동화교육(OA교육)에는 남성에 대한 선호가 36.7%, 여성에 대한 선호가 20.5%로 나타나, 성별 선호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영역에서 군필남성에 대한 선호 양상은 채용/선발, 승진/인사평가 등에서도 두렷하게 나타나, 군필남성에 대해 50%를 넘는 선호를 보였고, ‘선호없음’의 응답이 30% 내외인 반면에 군면제 남성과 여성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일이거나 핵심적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군면제 남성에 대한 선호는 지방출장에서 12.1%로 유일하게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직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 내부에서 군필자에 대한 유·무형의 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동시에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가중시키고, 직장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배제의 요인이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함.

● 인사업무 담당 유경험자, ‘채용/선발 시’ 군필남성에 대한 우대 및 선호 경향을 나타냄.

- 채용시 여성 응시자 대비 군필남성 선호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9%가 군필남성을 선호한다는 응답이었고, 승진 시에도 여성에 비해 군필남성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52.2%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채용 및 승진 평가」에서 군필남성에 대한 선호와 우대가 실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군필남성에 대한 선호와 우대 경향은 20대보다 40대에서 더욱 두드러졌음. 직장영역에서의 군복무 이행 남성에 대한 우대와 선호를 주요변수별로 살펴 본 결과, 현역 군복무 이행자가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미필/면제자에 비해서 군필남성에 대한 우대와 선호 경향이 더 컸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규모가 큰 직장을 다니는 남성 응답자에게서 군필남성에 대한 우대와 선호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직장에서 인사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채용선발에서 군필남성을 10% 이상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 군복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 남성 응답자들은 군복무의 공익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는 반면, 개인적 손실로 여기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 남성들은 군복무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 ‘국가 이익에 부합’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 의미부여를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리더십 배양’이나 ‘개인의 미래에 도움’, ‘지식 및 기술 습득에 도움’ ‘개인적인 성장의 기간’ 순으로 의미를 부여한 반면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응답은 가장 낮았음.
- 군복무 경험이 도움된 긍정적 측면으로 ‘협동심 강화’와 ‘인내심 향상’을 주로 꼽았음.
 - 군복무 경험이 개인에게 도움이 된 정도를 연령별로 보았을 때 ‘협동심 강화’와 ‘인내심 향상’의 2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40대, 20대, 30대 순으로 도움의 정도를 크다고 보고했다. 군복무 유형별로는 현역 복무자가 ‘리더십 향상’과 ‘협동심 강화’, ‘참여의식, 시민의식향상’의 3개 항목에서 미필/면제자, 보충역/사회복무요원들보다 점수가 높았음.
- 병영문화에 따라서 군복무의 긍정적 측면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은 군복무가 자율적이면서도 사회적, 대인관계적인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은 조

직에서 인내하는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경향을 보였음.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은 군복무경험이 ‘대인관계 원만’과 ‘협동심 강화’, ‘참여의식, 시민의식 향상’등에서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인권비친화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은 비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에 비해 ‘인내심 향상’과 ‘조직 적응력 향상’에 군복무 경험이 도움이 컸던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비친화적,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군복무 경험의 부정적 측면을 크게 인식

- 군복무 경험의 부정적 측면 인식을 연령별로 비교하였을 때 ‘성윤리 둔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0대가 20대나 40대에 비해 이러한 측면이 더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음. 군복무 유형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권비친화적인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은 모든 항목에서 군복무경험의 부정적 측면을 높게 보고하였고, 특히 ‘폭력문제에 대한 둔감’과 ‘성윤리에 둔감’의 두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음.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도 비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에 비해 군복무 경험의 부정적 측면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바. 군복무 중의 내무생활문화와 교육훈련문화에 대한 인식

● 일부 불합리한 내무생활 문화에 대한 응답에서 연령대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과거의 내무생활 관행이 최근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연령대별 내무생활 문화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인 자유시간, 자기계발 등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음. 그럼에도 ‘불필요한 작업/점호준비 등의 시간소모가 많았다’, ‘선임병

의 군기잡기/기수서열 다툼' 등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음. 소속군별로는 공군이 '자유시간 보장',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 기회', '체력단련', '취미/오락/교양 문화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더 잘 보장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해군/해병에서는 '점호준비 시간소모', '서열다툼/군기잡기' 문제 응답비율 높았음.

●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많았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육군이 가장 높았음.

- 소속군별 교육훈련문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투력 향상 교육훈련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소속군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인권교육 등 인성교육',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있어서는 소속군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음. '인재육성 관점의 역량개발교육'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육군과 해군/해병 소속 제대군인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리더십교육' 등에 있어서는 해군/해병 출신 남성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 한편 육군의 경우,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많았다'라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해군/해병 출신 제대군인들에 비해서 더 높았음.

사. 인권침해적 병영문화와 억압적 병영문화 실태

● 20대 군복무 이행자 중 신체적 구타/폭행을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비율이 33.6%로 여전히 높아

- 반인권적 병영문화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군복무 이행 남성들이 반인권적인 병영문화를 경험한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최근보다는 과거에 더 심각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음. 그럼에도 20대에서 신체적 구타폭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이 33.6%, 여성에 대한 비하 성적대상화 발언, 음담패설 등이 35.1%로 높았고, 성적 괴롭힘 19.8% 그리고 '사생활

노출 압력’, ‘집단 따돌림’ 등도 30% 내외로 비교적 높았음. 소속 군별로는 다소의 차이는 보이지만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음.

- ‘인격모독’, ‘언어폭력’, ‘선임병들의 군기잡기나 기수서열 다툼’ 등에서 연령별, 소속군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즉 소속군별로 보편화된 병영문화임을 시사해 줌.
-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군기잡기 등의 강압적인 병영문화를 나타내는 항목들로 이루어진 억압적 병영문화 항목들에서 나타난 응답 결과를 살펴본 결과, 역시 30~40대에 비해서 일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인격모독이나 언어폭력’은 30대와 40대 군복무 이행자에 비해서 별반 낮아지지 않았고, ‘선임병들의 군기잡기나 기수서열 다툼’도 빈번히 일어나며, 연령대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소속군별로는 해군/해병의 경우 ‘부당한 일차려’, ‘단체기합’이 많은 편이었고, ‘선임병들의 군기잡기 서열다툼’이 가장 많았음. ‘인격모독이나 언어폭력’, ‘전투력과 무관한 군기잡기’는 소속군별로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아. 군대와 성문화

- 군복무 이행자가 미필/면제자에 비해 높은 성매매 비율을 보였음.
- 이는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로서, 연령 통제 후 추후분석이 필요한 부분임.
- 군입대 직전 처음 성매매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와 40대는 군입대 직전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군 입대 후 성매매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많았음. ‘군에 간다’는 것이 남성들에게 모든 면에서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의 형태로 전달되었을 개연

성을 시사해 줌.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매매 경험이 적음
 - 성매매 경험 여부는 ‘연령’과 ‘병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 미필/면제자에 비해 어떤 형태로든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보고를 더 많이 한 것은 군복무가 성경험이나 성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나 미필자들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으므로 이는 연령의 효과일 수 있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매매 경험을 유의하게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자. 군대 내 인권상황

- 인권관련 교육 경험자, 20대, 공군이 인권문제 제기의 직간접 경험을 높았음.
 - 전반적으로 인권문제 제기를 인지한 응답자의 비율은 10% 초반으로 높지 않았음. 그러나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인권문제 제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보고하였고, 공군에서는 무려 26.2%의 응답자가 인권문제 제기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인권문제 제기를 목격한 비율이 높은 추세를 보였고, 소속군별로는 공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음.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양성평등/성인지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인권문제 제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음.
- 인권문제 제기가 잘 처리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응

답이 45.8%

- 목격하거나 경험한 인권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가해자 처벌, 혹은 가해자 처벌과 지휘관 문책이 이루어진 경우가 50%가 넘었으나 25.3%의 응답자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마되었다’고 응답했고, 20.5%의 응답자들은 ‘오히려 부대 전체의 군생활이 힘들어지고 피해자가 오히려 욕을 먹었다’는 응답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11.4%가 직접적인 인권 피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침해 피해 경험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4%가 ‘직접적인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군대에서의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권침해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인권비친화적 군대문화, 억압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한 남성들이 인권친화적 군대문화, 비억압적 병영문화에서 군복무를 한 남성들에 비해서 직접적인 피해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였음.

● 인권침해 피해자의 83.0%가 인권침해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침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알아 본 결과, 피해 경험이 있는 83.0%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8.5%는 ‘지휘관에게 보고하거나 건의함에 올렸다’고 응답하였고, ‘소원수리를 이용하였다’는 응답이 5.2%, ‘병영문화/인권상담관과 상담을 하였다’는 응답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침해 무대응의 가장 큰 이유로 ‘비밀보장이 안됨’을 꼽았음.

-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무대응의 가장 큰 이유로 61.4%의 응답자가 ‘비밀보장이 안되어서’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음. 또한

‘피해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부대원 전체의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응답이 26.0%로 두 번째로 높았고, ‘지휘관이나, 상급자, 부대원이 문제제기를 막는다’는 응답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1.6%), 문제제기를 해도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2.6%에 이르렀음.

● 인권친화적/비억압적 병영문화 경험자가 인권보호와 군기를 별개로 생각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구타나 폭력에도 허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인권적 병영문화 수준별로 군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전망은 인권비친화적 문화를 경험한 사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이었으나, 인권보호 강조와 군기를 연결시키거나 구타, 폭력의 용인에 대해서는 인권비친화적 문화를 경험한 응답자들에 비해 덜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였음. 또한 ‘보호관심병사, 고문관병사들이 남성성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도 인권비친화적 문화를 경험한 응답자들에 비해 15% 이상 현저히 낮았음. 또한 비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앞서의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과 유사하게 인권보호와 군기를 별개로 보는 태도를 취하였고, 구타나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았으며, ‘남성성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고정관념도 현저히 낮았지만,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향후 전망이나 인권상황의 개선이 군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억압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남성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3 정책제언

제안1: 바람직한 성역할 가치관 형성을 위한 여성가족부· 국방부간 협업기능 강화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2013년부터 MOU를 맺은 바 있음. 협업의 가능성은 이미 상호 인식의 폭을 넓혀왔다는 것을 의미함.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국방부가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임. 성군기 관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교재 개발이나 강사 인력 양성 등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이 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남성의 군복무 이행 또는 군복무 중 이루어지는 성역할 재사회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남성만의 과도한 책임의식과 역기능적 성역할 갈등은 과잉근로, 일중독의 결과를 낳고, 남성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 성평등, 직장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앞서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인권비친화적 병영문화에 노출은 남성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낮은 자존감을 갖도록 하고, 남성성에 대한 역기능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삶의 무게를 더 크게 짊어지는 양상을 보임.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의 성역할을 수행하는데 더 큰 갈등을 경험하고, 남자다움을 유지하는데 더 큰 스트레스를 지니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성별관계에 있어서도 낮은 성평등의식, 높은 성차별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과 배치되는 것이고, 병영문화의 개선 문제가 여성가족부와 무관할 수 없음을 잘 보여 주는 결과임.

협업이 필요한 분야는 군대내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부문에서 체계적 접근이 가능할 것임. 현재 군대 내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은 국방여성정책과의 업무 영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교육 콘텐츠는 물론 강사인력의 수급이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역할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

특히 병사 대상의 양성평등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영역에서의 추진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군복무가 바람직한 성별 관계 형성의 재사회화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봄.

제안2: 전인교육 체제로의 병영정책 방향 설정 필요

대부분 젊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남성의 군복무는 전투력 자원으로서 의미도 크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는 시기라 할 수 있음. 이 시기의 자유의 박탈과 획일화된 사고, 경직된 가치관을 갖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 안 될 것임. 군복무의 긍정적 측면이 사회적인 이미지로 굳어 있지만, 실상은 소위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받고, 위계적 상명하복의 쓴 경험과 자신보다는 조직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부지불식간에 내면화된 결과일 수 있음. 이것이 조직운영에 유용한 인성일 수 있지만, 창의성과 독창성의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고려한 손익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음. 미래 인재는 시대를 관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와 열린 가치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병영문화, 내무생활, 교육훈련 등의 병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세밀히 설계될 필요가 있음.

제안3: 자기계발을 자극할 수 있는 병영생활 환경 조성

군복무에 이미지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이지만, 자신에게 부족하였던 부분을 메꾸고 채울 수 있는 시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대부분 남성들은 군복무 시기가 잃어버린 시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났음. 힘든 군복무 중에 작은 시간이나마 자기계발에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에 대한 관심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학습기회가 주어져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

이는 행태들이 많다는 것임. ‘힘든 군복무 중에 무엇을 할 수 있겠나!’하는 자포자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임. 병영생활 속에 이러한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자기계발과 자아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실제 이를 활용하는 군복무자가 늘어나야 하며, 이러한 긍정적 모델이 병영생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예컨대, 병영 내 학습 우수자에 대한 시상 기회를 높이고,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병사가 적다’라는 자괴감 섞인 현실안주적 접근보다는 이들을 일깨울 수 있는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임.

제안4: 학업 연속성 보장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

복무 중 학업 중단과 자기계발 기회의 상실은 군생활에서 커다란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기회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점취득 인정제도』가 도입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부대 내 원격강의를 위한 컴퓨터의 보유대수가 현재 9인당 1대 꼴로 배치되고 있어, 현재의 병영문화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충분한 수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임. 각급 부대의 컴퓨터 보유 대수를 늘리고, 부대 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요구될 것임. 또한 사용하는 사람의 지위나 계급 때문에 원활한 활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 보유 컴퓨터의 성능 및 부품이 이용자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점도 중요하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임.

제안5: 병영정책 및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사에 대한 관심 필요

현재 국방부는 군복무 병사들의 복지, 학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시행 중에 있음. 군복무 중 중단 없는 학업과 자기계발 기회

를 제공하는 것, 경제적 손실 경감, 취업지원, 건강 등의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특히 학업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등의 제도는 일부 여건이 되는 부대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임. 온라인교육에 의한 학점취득이나 취업지원교육 등은 컴퓨터가 충분히 보급되었거나, 취업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일부 병과나 부대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취업지원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사 대상의 학습지원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취업지원의 경우도, 주로 기술병과나 고졸 학력이나 검정고시준비를 하는 병사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반면에 전투병과나 격오지에 배치된 다수의 병사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학습지원이나 취업지원교육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여겨짐. 이들을 포괄하는 학습지원, 취업지원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제안6: 군대 내 인권교육 강화 및 내실화

군대 내 인권비친화적 병영문화는 본 연구의 대부분의 영역별 주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매우 장기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의 경우, 군복무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에서 ‘폭력문제에 대한 둔감’이라는 응답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사람과 인권비친화적 병영문화를 경험한 사람간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더구나 인권감수성 측정 결과를 보면, 인권비친화적 병영문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군복무가 끝난 지 오래된 40대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었음. 따라서 군복무 중에 장시간 노출된 반인권적, 억압적 병영문화는 사회적 파급력이 지속되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연계되어지기 마련일 것임. 따라서 군대 내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및 제반 소양 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임.

제안7: 군 인권문제에 대응 체계로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 강화 및 군옴부즈만제도 도입

군복무 남성들 대상의 이 번 조사 결과에서 군 인권문제 발생과 피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소극적일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높았고, 구체방안으로 도입된 병영생활상담관제도나 인권상담관제도를 이용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극적 대응의 사유로 ‘비밀보장이 안된다’는 응답이 6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구나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대원 전체가 힘들어 진다는 연대책임의 문제가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인 것으로 밝혀졌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영생활상담관이나 인권상담관의 독립적인 지위 부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휘관의 인사평가나 재임용 평가와 무관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실 여성계에는 오랫동안 인권침해의 피해의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권관련 문제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 풀을 갖고 있다고 보임. 이러한 부분에서 여성가족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크다고 생각됨.

과거에도 군옴부즈만제도가 검토된 바 있으나, 이것이 무산된 적이 있었음. 최근 불거진 인권문제들에 비추어 군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음. 군옴부즈만은 군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민간의 통제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권한의 균형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일 것임. 따라서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소수자 차별 문제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일 것임. 군옴부즈만은 독일의 사례와 같이 국회에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또는 연계하여 군대 내 인권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평가·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법적 정비가 따라야 할 것임.

제안8: 지휘관 및 부사관 양성 시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기본소양 교과로 편입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므로 바람직한 병영문화와 군대문화 조성에 가장 중요한 핵심 세력은 병사보다, 군대에서 지휘관의 지위에 있는 직업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음. 직업군인 중에서도 병사와 직접 만나고 접촉하는 위치에 있는 부사관, 위관급에서 지휘력과 인권의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됨. 군대에서 군기확립은 비합리적인 구타, 폭력, 인권침해가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할 것임. 이러한 지휘관의 평등한 가치와 인권의식은 다양한 성장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병사들의 문제에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고, 병사들의 사기와 안전을 보장하는 요인이 될 것임. 성평등의식과 소수자 문제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잡힌 가치관은 다양한 성장배경과 인성을 가진 병사들에 1차적인 본보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리더로서의 장점을 접할 병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양으로 간주될 것임. 지휘관 및 부사관 양성과정에서 체계적인 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재교육으로 일선에서 양성평등강사로서, 인권교육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임.

제안9: 병영 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군대를 제2의 교육기관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따라서 폭력예방,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인성교육, 양성평등 등의 관련 주체들마다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병영정책 담당자로서는 이들 다양한 요구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안일 것임. 분야별 개별적 접근은 중복과 난립의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 시점에서 군복무 중 필요한 인성교육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교육/훈련 시간과 인성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적절히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

한 가지 대안으로서 인성 교육에 필수적인 다양 이슈들에 대한 통합교

과 또는 교재를 마련하고, 군복무 중 적어도 1회 이상의 순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이 연구는 군복무와 연관된 남성의 삶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남성들의 군복무 이행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아울러 군복무 이행이 남성의 성역할 재사회화 및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됨. 이 연구에서는 남성 중심적, 인권비친화적, 억압적 병영문화가 남성의 성역할 갈등에 부정적 파급효과 내지는 남성의 역기능적 성역할 재사회화의 기재로 작동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실 있는 군대내 양성평등교육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더 나아가 억압적 병영문화나 인권침해에 대한 보다 투명한 대응방안으로써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군음부즈만제도의 도입과 추진체계마련 등에 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음. 향후 이들 정책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군복무를 이행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이 기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 군대가 양성평등적 가치의 존중, 다양성 가치의 존중, 인권감수성을 두루 갖춘 전인적 미래 인재 양성의 전략적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과, 폭력예방과
관계부처 :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문화정책과, 병영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등